### 옛 제주인의 삶과 정취를 느끼다

# 机平 付货电车叶空间서의 計手

제주 서귀포

어느 대중가요의 노랫말처럼 '낭만과 자유의 섬'으로 인식되는 제주도는 '제주=신비로운 바다'란 공식을 만들어냈다. 서양해변을 연상시키듯 푸른 제주바다는 솜사탕 같은 달콤함이 둥둥 떠다니는 곳이다. 하지만 제주의 향기를 온전히 이해하고 즐기기에 바다 하나만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성읍민속마을에서 제주도의 또다른 매력을 찾아보자.



# 机平 双导口 全中 金针 对多叶堂 "老对多什么"

예전에는 정의 마을이라고 불렸던 이곳 성읍민속마을에 들어서면 정겨운 인상의 돌하르방이 인사를 건넨다. 성읍민속마을은 조선시대 제주 정의현의 도읍지로 제주 동부지역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산골마을이면서 도읍지였던 독특한 이력의 성읍마을은 제주도의 전통가옥과 생활문화가 어느 곳보다도 잘 남아있으며 주민들이 대대손손 살고 있는 민속마을로서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제주의 전통 초가를 보는 것에서 그 치지 않고 지난해 7월부터 성읍민속 마을에 있는 전통초가 6채를 보수해 체험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한옥의 내부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현 대식으로 개조하였지만 온돌과 창은

옛 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어 초가의 따뜻한 정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또한 성읍민속마을 전체가 중요민속자료이기 때문에 한옥 어느 곳에서도 취사는 절대 불가능하다.

## 那年十二 对整合管 对答于处理

#### 성읍민속마을에서만 가능한 이채로운 체험

민속촌 내에서는 육질과 맛이 좋은 흑돼지와 좁쌀 막걸리, 메밀 빈대떡 등의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줄을 꼬아 묶는 짚줄놓기와 메밀, 무로 만드는 제주전통의 빙떡 만들기 등의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다. 제주 사투리를 배울 수 있는 특이한 체험도 마련되어 있어 성읍민속마을에서만 가능한 경험에 즐거움이 배가 된다.

#### 500년 문화유산 정의골 축제

성읍민속마을에서는 매년 '정의골 민속한마당 축제'를 열고 있다. 약 500여년 간 정의현의 도읍지였던 정의골의 유, 무형 문화재 등을 비롯하여 마을 전체를 보존하고 지켜가기 위한 결의를 담고 있는 축제이다. 각종 전통공연을 비롯해 전통음식 재현 그리고 조밭 다지기, 김매기, 감 물들이기 등 다양한 제주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된다.

#### 제주의 전통과 문화를 확인하는 곳

성읍민속마을 인근에는 제주만의 민속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제주민 속촌박물관과 탈과 도깨비박물관 등이 있다. 제주민속촌박물관에서는 공연 이나 유물을 관람하는 것은 물론, 제주방언을 배울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 된다. 또한 탈과 도깨비박물관에서는 제주만의 특색이 드러나는 가면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가면을 관람할 수 있다.

#### 성읍민속마을 찾아오는 길

제주국제공항 → 코끼리랜드 → 대천동사거리 → 성읍승마장 → 성읍민속마을 (☎064-787-1179, 제주 관광정보 ☎064-710-3314, cyber,ieju,go,kr)

#### 기타 관광지

제주민속촌박물관 제주민속촌박물관은 조선말인 1890년대를 기준 연대로 삼아 제주도 전래의 민속자료를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시하고 있다. 특히, 100여 채에 달하는 전통 가옥은 비슷한 모습으로 꾸며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주도민이 생활하던 집을 돌 하나 기둥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옮겨와 거의 완벽하게 복원해 놓은 것이다.

제주허브동산 약 180여 종의 허브와 우리 산하의 야생화로 채워진 각양각색의 정원들과 작은 동산들, 그리고 6.611.6㎡(2,000평)의 체험 감귤농장 등 다양한형태의 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허브동산의 주요테마는 '쉴 休(휴)', 번잡한 일상과 긴장된 도시 생활의피로를 털어버리고 봄날 오후 같은 편안하고 조용한휴식을 선사하는 것이 이곳의 매력이다.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루게릭병으로 인해 거동조차 불편했던 몸으로 옛 삼달초등학교를 직접 다듬고 손질해서 멋진 갤러리로 탈바꿈시킨 사진작가 故 김영갑씨의 열정과 제주도의 고요와 평화를 담은 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오름, 초원, 바다, 안개, 바람, 하늘, 그리고 왠지 모를 쓸쓸함까지 제주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의 사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기국수** 고기국수는 제주도 향토음식 중 하나로 경조사 때 즐겨 먹던 음식이다. 돼지로 우려낸 구수한 육수에 돼지고기를 고명으로 얹어먹는 국수다.

몸국 몸국 역시 제주도 사람들이 즐겨먹는 토속음식이다. 고기국수와 마찬가지로 돼지로 진하게 우려낸 육수에 모자반을 넣어 끓인 국으로, 담백한 육개 장을 연상시킨다.

#### 여행코스



